

소공동체모임 길잡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0년 12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복음 나누기 7단계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 나누기

복음 나누기 7단계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
눅시다.”

6단계 모임에서 해야 할 활동에 대하여 토의한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

소공동체 기도

사랑의 근원이시며 친교의 모범이신 삼위일체의 하느님!
저희들은 초대 교회 신자들의 모범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는
소공동체 운동을 활발히 실천하여
친교와 봉사과 증거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오니
성령의 은사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복음 선포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소공동체 살림살이

소공동체 실천사항	
본당 공지사항	

열 처녀의 우화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88번 '임하소서 구세주여' 1,3절을 부릅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사랑이신 주님, 늘 저희와 함께해 주소서.

— 주님, 저희에게 당신 나라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노력



준비



즐음



노력의 결과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마태오 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때에 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 없을 때는

- 나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까?
- 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떤 다짐을 합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오시는 하느님을 기다림

- 헨리 나웬

하느님께 얼마간의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온갖 노력을 다하더라도
주도권은 여전히 오시는 하느님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의 토대가 되는 약속이 있다.

따라서 우리 삶은 당연히
기대를 갖고 기다리는 삶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기다림은
인내와 미소가 담긴 기다림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진실로 놀라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된다.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함시다.
(실천사항을 정한 후 본당 공지사항과 기타토의를 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함시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91번 '구세주 빨리 오사' 를 부릅시다.

'이천열 씨 환송회'

가정에서 온 가족이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진행합니다.

※ 준비물 - 가족 수 만큼의 A4용지와 펜, 쓰레기통

가정기도를 시작하며

진행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중의 한 사람이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해 주세요.

말씀과 함께

진행자 한 사람이 다음의 성경말씀을 읽어 주세요.

† 에페소 서간 4,32.

32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진행자 이번엔 다 함께 소리 내어 다시 한 번 읽어요.

(다 읽은 후) 잠시 동안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나누기

- ① 성경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 ② 한 해를 살아오면서 느꼈던 소감을 돌아가면서 발표해 봅시다.

함께 생각하기

진행자 오늘의 주제는 '이천열 씨 환송회'입니다. 이천열 씨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곁에 머물다 이제 떠나갈 준비를 하는 2010년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올 한 해 동안 우리 곁에 머물렀던 이천열 씨에 대한 추억을 회

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가족 모두 A4용지를 한 장씩 받은 후 가로방향으로 놓은 후 반으로 접었다가 펍니다.

(나) 접혀졌던 부분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고, 오른쪽에는 슬프고, 괴롭고, 아쉬웠던 일들을 적습니다.

(다) 접혀진 부분을 반으로 잘라낸 후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을 적었던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슬프고 괴롭고, 아쉬웠던 일들을 적었던 부분을 속 시원하게 찢어버린 후 휴지통에 던져 버립니다.



생각 나누기

- 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에 대해 발표해 보세요.
- ② 슬프고, 괴롭고, 아쉬웠던 일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 ③ 가족에게 특별히 용서를 청하고 싶은 일이나, 용서를 해주고 싶은 일이 있는지 대화를 나눠 보세요.

❖ 함께 실천해요!

2009년 2월 16일, 하느님 곁으로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이천열 씨가 우리 곁을 떠나가면서 남기게 될 마지막 한마디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 가족회의

진행자 가족회의의 시간입니다. 가족이 함께 알아야 할 사항이나 논의가 필요한 일들, 가족 친지들의 생일, 축일 소식이나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 가족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녀에 대한 훈계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평화의 인사

진행자 지금부터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방법은 온가족이 돌아가며 포옹하고, 부모님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세요.

❖ 가정기도를 마치며

진행자 다함께 손을 잡고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소공동체와 선교2 - 소공동체 선교 활동의 구체적인 방법

1. 소공동체 안에서 선교계획

1) 선교계획수립

소공동체에서 가장 시급한 선교문제를 논의한 후 분야별(모임의 불참자, 냉담자, 입교 대상자 등)로 목표를 선정합니다. 본당 선교분과의 연간 계획을 참조하여 이에 상응하는 소공동체 선교활동 시기를 결정하여 소공동체의 환경에 맞는 선교방법을 선택합니다.

2) 선교 대상자 선정

선교 대상자는 교적과 예비신자 대장을 참고하여 선정합니다. 냉담신자는 냉담기간 및 세례기간, 가족 구성원의 신자 수 등 대상 가정을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과 활동자를 선정합니다. 예비신자의 경우 탈락자는 명단을 받아 탈락 시기와 탈락 원인, 연령 및 여건을 파악하여 활동방법과 활동자를 선정합니다.(서신 발송, 1차 방문, 2차 방문)

3) 선교 대상자의 분류 및 명단 작성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에 의해 선정합니다.

- 냉담신자 : 세례 받은 본당과 연도 및 마지막 판공성사 연도
- 예비신자 : 개인 신상에 관한 것

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특이 사항 등을 작성한 후 소공동체 봉사자 및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나누어 주되 사생활에 대한 문제는 비밀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4)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

위와 같은 여러 장애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를 해 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바치는 공동기도(화살기도, 매일 묵주기도 몇 단 이상)와 개인적으로 바치는 기도(방문이나 직접 활동이 어려운 분들

에게 기도활동을 하게 할 수 있음)를 하도록 합니다.

2. 소공동체 선교활동

1) 예비신자들을 위한 선교활동

입교식부터 신속하게 명단을 받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계획을 세웁니다. 교리반 동행은 물론 본당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배려하며, 적당한 날짜를 정해 소공동체에서 환영식을 마련해 자연스럽게 모임을 알려주도록 합니다.

2) 냉담신자들을 위한 선교활동

꾸준한 방문과 유인물을 통한 친교와 끊임없는 기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소공동체는 냉담자들을 분류하여 효과적인 방문자를 선정하고, 선교분과나 레지오 등에 도움을 요청하되 기본적으로 소공동체에서 전 과정을 숙지하여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3) 전입교우들을 위한 선교활동

전입교우가 있을 경우 방문을 하여 본당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단체에 가입하게 하여 본당에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열심하지 않는 신자들을 위한 선교활동

주일미사 참례는 하지만 소공동체 모임이나 행사에는 소극적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소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앙은 체험을 통하여 굳건히 성장할 수 있으므로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신앙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수원교구 복음화국에서 발행하는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 2단계 지도자용 지침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소공동체활동사례 : 12년째 성장해온 신앙의 나무

김병식 세라피노(대건본당 현대구역장)

현대구역 남성 소공동체는 대건성당 미수동 현대아파트의 신자들을 중심으로 한 달에 한 번 매달 두 번째 금요일에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역장은 제가 맡고 있으며 총무는 김영협(라파엘) 형제님이 맡고 계시며 8분 정도가 지속적으로 모임에 나오십니다. 소공동체 가운데서도 특히 남성 소공동체 모임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다른 본당과는 달리 1998년 결성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우리 현대구역의 자랑입니다. 서로 가까이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 있다 보니 반원들이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세월이 오래된 만큼 말씀을 통해 깊은 정을 나누고 있다 보니 복음나누기를 비롯하여 이야기꽃을 피워 시간이 가는 줄을 모릅니다. 구역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저는 구역장에 다시 연임되어 3년째 이어가고 있고, 총무 김영협(라파엘)형제도 계속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소공동체는 성경말씀을 그 중심에 두고 성경말씀과 함께 몸소 실천하는 신앙인의 모임이라고는 하지만 저희들은 직장관계 때문에 성경말씀을 잘 실천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토요일이나 주일에는 미륵산으로 가서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보호 활동을 하며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습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2년이 된 소공동체 인지라 세월이 상당히 오래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있는데 저희 소공동체도 그런 모습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주일에 1번 정도 모여 우리 동네에 있는 미수해양공원으로 자연 보호 활동을 나가는 작은 소망을 피워봅니다.

우리 구역은 비록 인원은 몇 명 안 되지만 이런 작은 일에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못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소공동체를 이루어 성경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성경에는 비윤리적인 내용들도 많은데요?

사목국

성경을 읽다보면 지금의 윤리나 교리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9장의 롯과 두 딸에 관한 이야기, 창세 38장의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타마르의 동침이야기, 사무엘 상권 28장의 사울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를 통해 사무엘의 혼백을 불러내는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읽다보면 교회의 가르침과는 차이가 나기에 의아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교리와 윤리 문제는 계시가 점진적으로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점진적으로 교육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수준에 따라 산수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수학을 가르치듯, 하나님께서도 인류의 발전 단계에 따라 조금씩 더 상위의 윤리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따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전단계에 있는 그때의 문화를 무조건 지금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면서도 잡신 숭배에 관한 이야기도 가끔씩 나오는데, 잡신숭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성과 문화의 발전 정도에 따라 인간이 그리는 하나님의 모습은 차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등장

하는 잡신 숭배는 하느님을 찾는 인간의 열망이 낮은 차원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느님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만을 위해서 주변의 모든 민족을 다 쓸어버리시는 잔혹한 신처럼 여겨지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편협한 민족주의가 빚어낸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폭력과 전쟁 이야기들은 '주 하느님께서 이처럼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더욱 생생하고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본문에서 교리와 윤리는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종합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구원에 필요한 교리나 윤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완전히 계시되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구약의 교리나 윤리를 비추어 보아야 하며, 비윤리적이고 교리와 상반된 내용들은 발전과정의 교리나 윤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가끔 사이비 종교의 가르침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한 부분만을 가지고 자신들의 교리나 윤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를 왜곡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배관검 프란치스코 - 마을에 강당을 마련했으나 -

김길수 · 사도요한(전 대구가톨릭대학 교수)

제사문제로 윤지충과 권상연이 순교하던 1791년 신해 박해 때 그는 체포되었다. 아직 신앙이 굳지 못했던 그는 그때 배교하고 풀려났다. 그러나 석방되자 이내 배교를 뉘우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 열심히 하느님을 섬기며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서산지방으로 이주하였다.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교향의 이웃에 있는 면천양제(현 충남 당진군 순성면 양유리)로 돌아와 교우들과 함께 신앙공동체를 이룩하였다.

그러던 1794년 말에 최초의 사목사제로 주문모 신부가 입국하고 어려운 중에도 지방의 신앙공동체를 순방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듣고 사제를 모시고 싶었던 그는 1798년에 동료들과 함께 강당을 마련하고 신부를 모시려는 희망에 차 있었다. 그런데 그 무렵이 바로 충청도 관찰사로 임명되어 공주에 부임한 한용화(韓用和)가 일으킨 정사박해로 충청도에서 백여 명의 신자들이 체포되고 순교자가 나오던 어려운 때였다.

당시에 박해자의 앞잡이가 배교자인 조화진(趙和鎭)이었다. 김여삼과 함께 초기박해의 밀고자로 유명한 조화진은 정사박해가 일어나자 지필묵을 파는 필공이나 행상으로 가장하고 신자들의 집을 염탐하였다. 그는 신자들이 체포될 때에 같이 체포되어 들어갔다가 석방되어 나오는 교활한 짓을 되풀이하며 때로 십자성호를 그으며 교리 설명까지 해서 속임수를 쓰다가 1801년에 투옥되어 옥중에서 자결하였다.

강당을 지어놓고 신부님을 모시려는 희망에 찼던 배관겸은 이 몫쓸 밀고자 조화진에 발각되어 체포당했다. 배관겸 프란치스코(裴觀謙, ? ~ 1799)는 충청도 당진의 진목(현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항리) 출신으로 관명은 '발은'으로 알려져 있다. 체포당한 그는 즉시 홍주로 압송되었다.

홍주에서 관장은 혹독한 형벌을 가하며 교우들이 있는 곳을 대고 천주교 서적을 갖다 바치라고 강요하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결국 굴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 화가 난 관장은 이 사실을 그대로 공주 감사에게 보고하였다.

감사는 배관겸 프란치스코를 청주 병영으로 이송하여 문초하도록 하였다. 청주로 이송되어 그는 덕산 출신의 원시보 야고버 등 다른 교우들을 만나 시련을 함께 하였다. 먼저와 고통 중에 있던 원시보 야고버는 일찍이

덕산에서 몹시 매 맞아 두 다리가 부러진 채 청주로 이송되던 때에 그의 아내와 자식과 친구들이 울며 따라왔다. 그때 그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말했다. “천주를 섬기고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할 때에는 인간 본성의 정을 따르지 말아야 하네. 모든 고생과 고통을 잘 참아 받으면서 우리는 기쁨 가운데 천주님과 착하신 동정 마리아 곁에서 서로 만나게 되네. 자네들이 여기 있으면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게 매우 해로울 수밖에 없네. 그러니 제발 이성(理性)을 따라 내 앞에 나타나지 말게.”하고 그들을 돌려보냈던 증거자였다. 배관점 프란치스코는 더없이 고맙고 모범이 되는 이 신앙의 동지를 만나 굳건히 신앙을 고백하며 증거하였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옥고를 치렀는데 배관점 몸의 살이 헤어지고 팔다리가 부러져 뼈가 드러날 지경이 되었다. 이런 때 옥고를 함께 치르던 원시보 야고버는 혹독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배교를 강요하던 청주 영장에게 “저는 9년째나 천주교를 위하여 순교하기를 원했습니다.”라고 하여 용맹을 떨쳐보였다. 결의의 찬 고백을 한 그는 종일 가해지는 형벌을 받았고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태장, 주장, 곤장, 주리 등 온갖 종류의 가혹한 형벌을 받을 때 배관점 프란치스코 또한 굳건한 신앙동지로 고통을 함께하였다. 이들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고 여전히 굳건하여 형벌은 계속되었다. 영웅적인 인내로 모든 것을

참아냈지만 노령의 증거자들에게 더 이상은 무리였다.

주님께서는 그 장한 결의를 이루게 하셨으니 1799년 3월 13일 원시보 야고버가 먼저 장하치명으로 70고령에 순교하였다. 그가 죽은 후 상처투성이인 몸에 이상한 광채가 둘러싸인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거의 50여 가족이 입교하여 신앙생활 하게 될 때 배관점은 더욱 굳은 결의로 가혹한 매를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동료 순교자 원 야고버처럼 1799년 12월 13일에 순교하니 당시 그의 나이 60세쯤이었다.

그때 배관점의 아들 배청모 아우구스티노도 체포되어 청주 옥에 갇혀 있었는데 부친이 순교하자 관헌의 허락을 얻어 장사를 지냈다. 장사를 지낸 아들 청모는 그 틈을 이용해 도망하였다. 도망쳤던 아들은 공주 면천동지로 옮겨가며 살다 1825년에 다시 체포되어 해미진영에 투옥되었다가 석방된 후에 사망하였다.

신앙의 동지와 함께 매 맞아 살이 헤어지고 팔다리가 부러진 채 장하치명으로 순교한 증거자는 오늘의 신앙 후손들을 보시며 무엇을 안타까워하실까 생각하면 목이 맨다.

신앙대학 제18기 원생 모집

마산교구에서는 평신도 신앙인들의 자질 함양과 세상의 복음화를 위하여 '신앙대학'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11년도 제18기 신학대학원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교육대상 : 세상의 복음화와 교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봉사할 평신도
지원자격 : 영세한 지 2년 이상 된 평신도로 본당 주임 사제의 추천을 받은 자(남,녀 연령 제한 없음)

교육기간 : 2년 (1월과 8월은 방학)
매월 첫 토요일 오후 2시~주일 오후 4시(1박 2일)

교과목 : 구약성경, 교회론, 영성신학, 윤리신학, 성령론/마리아론, 함께하는 여정, 신약성경, 교회법, 그리스도론, 성사와 전례, 교회사

등록비 : 마산, 창원지구 본당 - 연간 300,000원
진주, 통영지구 본당 - 연간 280,000원

모집인원 : 50명(선착순)

졸업특혜 : 신앙대학 졸업장 및 교리교사 자격증,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자격증 발급

지원방법 : 소정의 입학 양식을 사목국으로 우편 접수
(입학양식은 본당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음)

지원마감 : 2010년 12월 30일(목)까지

보내실곳 : (631-86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107-23번지 천주교마산교구청 사목국

기타문의 : 사목국 055)249-7021~3